

학습 자료

— 대학생들을 위한 저작권 노트 —



3차시. 나는 저작권자!

1. 저작자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고 합니다. 다만 누가 직접 창작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는 책에 저자로 표기하는 것 같이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 저작자로 표시된 사람이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작자는 저작권을 가지는데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작권자라고 합니다. 저작권은 양도가 가능하므로 저작자가 아니라 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 받은 사람도 저작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설가, 화가에게 힌트나 테마를 준 자, 편집 주간이 정한 편집 방향에 따라 단순히 소재를 배열하고 정리하여 기계적 작업을 담당한 자료정리 요원, 저작자의 조수 (수족이 되어 작업에 종사한 자), 그림의 주문자, 건축의뢰자 같은 사람들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작자의 요건을 더욱 명확히 알아볼까요? 연예인 A의 아버지는 B씨가 출판한 책에 본인의 딸이 공동저자이며,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신상 자료와 아이디어 사진을 주었다는 이유였지요. 하지만 대법원의 다른 판례에서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라고 저작자의 요건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신상 자료와 아이디어 사진 등을 제공한 것으로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같은 논리로, 설령 조수나 보조작가라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창작물을 저작한 사람이라면 저작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작자의 요건에 대한 다른 사례도 살펴보세요.

제4공화국 사건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10.24. 고지 95카합3860 결정)
극본 집필에 있어서 보조작가들이 단순히 그 자료수집이나 조언 등의 보조적인 단계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작자와 거의 대등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창의를 발휘하고 정신적 노력을 하는 등으로 공동 저작한 것은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

2. 대작

대작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저작물을 작성하고 그가 저작자인 것처럼 발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중에 전달하고자 하는 계약에 의한 저작행위를 말합니다. 대작, 대필을 한 경우에도, 실제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 제3자로서는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저작권법에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저작자로서 표시된 자’를 저작자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필 작가가 작성한 경우라도, 법적으로는 저자로 표시된 사람이 저작자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추정은 반증이 있으면 깨어집니다. 실제로 창작한 대작, 대필 작가는 자신이 저작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창작자임을 반증하여 저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시멜로 이야기’ 사건 때 책에는 아나운서 정씨가 번역한 것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지만, 제3자가 사실은 자신이 번역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회 문제가 되었었지요. 대작자가 자신이 저작자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필 작가가 자신이 실제 창작자임을 반증하여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고, 대필 작가를 저작자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필 작가가 실제 저작자임이 입증되면, 책 표지의 저자 표시에도 대필 작가의 이름을 적어줘야 하는데, 이를 성명표시권이라고 합니다.

주의 할 점은 대필 작가가 실제로 자신이 창작한 것을 입증하여 “저작자”가 되더라도 “저작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저작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저작권은 재산권이므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대필 계약을 통해 저작권은 넘긴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 귀속은 별론의 문제인 것이죠.

3. 업무상 저작물

저작자 결정은 실제 창작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강학상 “창작자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작자주의의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업무상 저작물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업무상 저작물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저작물

저작권법
제2조 31호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 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

저작권법 9조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 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종합하면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
2.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
3.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4.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
5. 계약 및 근무조건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그리고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실제 작성한 자가 아니라,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됩니다. 신문 기사는 대표적인 업무상 저작물인데, 월급을 받는 기자가 업무상 작성한 기사가 신문사 명의로 공표되면, 저작자는 기자가 아니라 신문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 시험문제의 저작자는 누구일까요? 시험문제는 학교 선생님들이 작성합니다만,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학교 시험문제를 업무상 저작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2008.4.10. 선고 2008다5004 판결

공립 고등학교 선생님이 소속학교 학생들의 학업수행 정도의 측정 및 내신성적 산출하기 위하여 출제한 시험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출제자의 기명이 없는 시험문제의 저작권자를 학교설립·운영주체라고 하면서 그 저작권은 공립은 교육청에, 사립은 학교재단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출제한 시험문제는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 고등학교 교사와 달리 대학 교수는 사용자가 강의를 기획하지 않으며, 교수가 자율적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학교의 기출문제는 교수에게 저작권이 있으며, 대학에서 마음대로 공개 출판할 수 없습니다.